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46호 2025년 8월 17일(다해) 연중 제20주일



<2020.07.28. 회원여름연수(영풍제련소 앞)>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장수분회

제1독서 예레미야서 38,4-6.8-10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히브리서 12,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루카 12,49-53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홍보·전산
오픈카톡

성령의 불

영해 본당 주임
최장원 라우렌시오 신부



형제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구약에서 ‘불’은 단죄와 멸망(종말)의 의미도 있으며,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탈출기 3, 2)라고 알려주는 대목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불은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불’은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례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과 ‘분열’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기는 신념과 불의가 대립한다는 뜻이며,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내려야 하는 결정이 곧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신념은 내 안에 도사리는 불의와 불신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제1독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신념과 불의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을 만납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8장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불의한 남유다의 왕, 치드키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예레미야는 그 이후인 기원전 627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백성의 죄와 타락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대변자로서 사회적 불의와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치드키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대제국 바빌론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하느님의 뜻을 구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과 대신들의 눈치를 보며, 신념과 불의 앞에서 방황했습니다. 치드키야 왕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념과 인간적 나약함 사이에서 방황하는 표상일 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과 최후 심판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불 혀처럼 제자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내적인 혼돈상태를 겪고 있는 인간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인간 마음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며, 이기심과 탐욕을 밝혀내고, 가르치는 분열의 ‘불’이자 칼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본질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속을 드러내는 칼이기도 합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히브 12,1)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죄의 본질과 싸우는 것이며,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장수분회

표지 사진 설명



1980년 당시 봉화지역에는 세 개의 분회가 있었는데 이중 봉화분회가 우리밀, 우리콩 살리기 운동과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에 함께하면서 1993년 장수분회로 탄생 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수세폐지투쟁, 고추값 제값받기, 외국농산물 수입반대, 농협조합장 직선제 등 농촌 민주화와 농민권익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이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본격화 하며 의정부교구 화정동 성당과 자매결연이 되어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배추절임 등 도농 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로 소를 사육하는 형제 27가구로 분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 농소 사육과 더불어 유기축산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회원은 영풍제련소 환경 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며 영풍제련소 소재지 재자연화에 앞장섰으며, 이 활동으로 2020년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회원(27가구) : 이상구 바오로(분회장), 이상식 대건안드레아·남원숙 소화데레사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한여름 짙은 붉음으로 오래 피고 지는 배롱나무꽃

춘양 본당 허태임 플로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원 《숲을 읽는 사람》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의 나의 초록목록》 저자)

기록적인 폭서가 이어지는 2025년의 여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더위쯤 아랑곳없다는 듯 태양의 빛깔을 도로 붉은 꽃으로 내뿜으며 기세등등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곁의 배롱나무 말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거의 백일에 걸쳐 꽃이 핀다고 ‘백일홍(百日紅)나무’라고 하다가 배롱나무가 되었다는, 옛사람들도 좋아하여 사찰이나 서원에 으레 심었다는 나무. 초본 백일홍과 구별하기 위해 배롱나무를 목백일홍, 나무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멕시코가 고향인, 국화과의 초본식물 백일홍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릅니다.

배롱나무는 꽃도 좋지만 아담한 키에 옆으로 넓게 퍼지는 수형이 아름다워 계절과 무관하게 정원수로 사랑받습니다. 특히 오래 산 배롱나무는 고즈넉한 옛 건물과 무척 잘 어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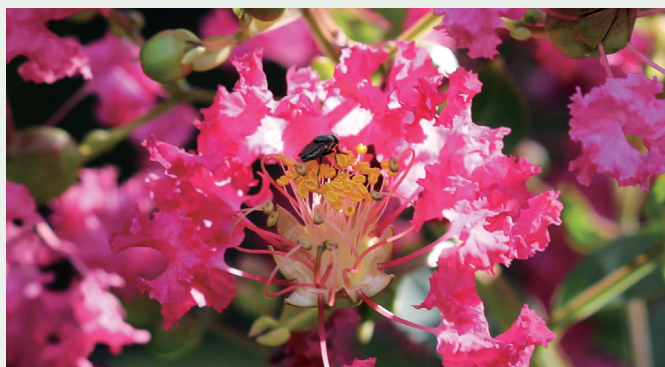
여름부터 가을까지 백일에 걸쳐 붉게 피는 배롱나무 ©허태임

배롱나무 고목을 만나기 좋은 장소로 안동 병산서원을 꼽을 수 있겠지요. 서애 류성룡(1542~1607)을 배향한 이 서원은 일찍이 1978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며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병산서원에서도 배롱나무의 장엄한 자태를 제대로 느끼려면 서원의 중심 건물인 입교당 뒤란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300여 년 전 서원의 풍치를 돋우려 누군가 심었을 배롱나무 고목 여섯 그루가 거기 있으니까요.

사실 배롱나무는 우리 토종 수종은 아닙니다. 중국 남쪽과 인도 남부지방이 고향입니다. 국내에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며 유럽과 미국에는 18세기 중반 정원수로 도입한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금은 배롱나무 원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품종을 전 세계 온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널리 심어 기릅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라서 겨울 추위가 매서운 곳에서는 심어도 잘 크지 못합니다. 달리 말해 점점 따뜻해지는 기후에 앞으로는 배롱나무가 더 넓은 지역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원명은 붉은 꽃이 핀다고 자미화(紫薇化), 줄기 껍질이 너무 반들반들해서 손으로 만지면 가지 끝 잎이 간지럼을 타듯 파들거린다고 파양수(怕癢樹)입니다. 국내 일부 지방에서 ‘간지럼나무’라고 하거나 제주도에서 ‘저금하는 낭’이라 부르는 것도 줄기의 특징에 빚댄 것이지요.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는 ‘원숭이 미끄럼 나무’라고 합니다.

배롱나무꽃은 하나의 꽃송이가 백일 동안 그대로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짐의 연속입니다. 가지 끝에서 수십 송이 꽃이 모여 고깔 모양 꽃차례를 이루는데, 하나의 꽃이 피었다 지면 곁에서 다른 꽃이 피어나는 질서 때문에 얼마간 계속해서 붉음을 유지하는 거지요. 덕분에 우리 눈에는 여름 내내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붉은 꽃송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주름진 예닐곱 장의 꽃잎이 마치 요정의 치마를 닮았습니다.



요정의 치맛자락을 닮은 배롱나무 꽃 ©허태임

배롱나무는 매끈한 나무줄기를 가졌습니다. 은은한 붉은 갈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곱게 번지는 나무 피부. 잎을 다 떨근 겨울에도 사람들의 눈길이 배롱나무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일 겁니다.

배롱나무는 고요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 무엇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로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자연에서 배웠습니다. 꽃을 통한 그윽한 자연으로의 몰입이 그래서 배롱나무 곁에서는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름을 곱씹을수록 저는 그런 생각에 이릅니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있어 올해 유독 잔인한 폭염과 폭우를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구나 하고요. 붉게 먼저 핀 꽃이 하나둘 지기 시작하더니 큰비가 지나가고 난 후 더 많은 꽃이 나무를 떠나 땅을 덮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개화와 함께 시작된 여름은 그들의 핏빛 낙화와 함께 서서히 저물 테지요. 그 찬란한 낙홍이 어서 가을을 준비하라는 배롱나무의 다정한 안내처럼 들립니다.



교구장 동정



8월 19일(화) 참사회의
8월 20일(수) 선교사목
주교위원회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8월 20일(수) 조종울 베르나르도,
손대혁 루치오 신부
8월 21일(목) 이상복, 최송근 비오 신부

서품축일

8월 23일(토) 류성태 신부

교 구

제10기 신앙대학 제4학기 개강

일 시: 8. 27(수) 19:30
장 소: 교구청 강당

중고등부 하반기 회장단 모임 (성지순례)

일 시: 9. 7(주일) 08:30~ 18:00
장 소: 청주교구 명예목 성지, 청남대
준비물: 편한 옷과 신발, 텀블러,
미사 봉헌금, 개인 비상약

제 단 체

제3기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강 좌: 고급 과정(1년)
(본당 제대봉사 3년 이상, 기본
꽃꽂이 1년 이상 수료하신 분)
장 소: 매주 목요일 10:00~ 12:00 교구청 강당
개 강: 9. 4(목)
신 청: 8. 31(주일)까지
문 의: 010-3816-2772

수 도 회 · 피 정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일 시: 8. 24(주일) 14:00~ 17:00
장 소: 서울 길음동 본원
문 의: 010-4882-9674

"엠마오 성경학교" 학생 모집

기 간: 9. 16(화)~ 12. 9(화) [11회기]
화요일 14:30~ 15:50
과 목: 모세오경- "탈출기"
대 상: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분.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맛들이고 싶은 분
장 소: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본원(송현동)
교육비: 120,000원
문 의: 010-3360-9817 보나 수녀

제28회 슈발리에 마음 축제

일 시: 9. 19(금)~ 21(주일)
장 소: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봉평 성심 못자리
대 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접 수: 8. 17일(주일)부터 선착순
회 비: 100,000원
문 의: 010-2817-3101

원주교구 성음악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인원: 기초과정(제19기): 20명,
전문과정(제10기): 00명
* 전문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에 한함
모집기간: 7. 29(화)~ 8. 19(화) 17:00
강의시간: 매학기(봄: 3~5월, 가을: 9~11월)
12주간, 주 1회(토) 6시간 수업
수강신청: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접수 후
개별 안내 상담
수강료: 1) 매학기 ₩400,000원(피아노 및
오르간 수강자는 ₩180,000원 추가)
2) 성음악 캠프, 교재비, 자치활동비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함
입학미사: 8. 30(토) 11:30 교구청 경당
(신입생 OT- 10:00, 강의실)
* 원주교구 성음악교육원 공지사항 참조
* 문 의: 010-4527-5046
* 입금계좌: 농협 302-1195-1353-61 이규영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제주 산들순례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 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생태순례: 9. 15(월)~17(수), 9. 26(금)~ 28(일),
10. 1(수)~ 3(금), 10. 12(일)~ 14(화),
10. 27(월)~ 29(수), 11. 2(일)~ 4(화),
12. 6(토)~ 8(월), 12. 12(금)~ 14(일)
성지순례(추자도): 9. 9(화)~ 12(금),
10. 16(목)~ 19(일),
11. 22(토)~ 25(화)
장 소: 면형의 집(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문 의: 064-732-4702

교 육

2026학년도 양업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

일 시: 9. 1(월)~ 19(금)까지
모 집: 전국 전 지역
문 의: 043-260-5076
*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가톨릭상지대학교

(친환경)자동차 기초 자가진단 및 점검 무료 교육

일 정: 8. 19(화), 21(목)
시 간: 18:00~ 22:00 (야간, 총 2일 8시간)
내 용: 자동차 구조, (전기)자동차 기초
진단 및 점검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식품가공(가정간편식) 무료 교육

일 정: 9. 6(토), 13(토)
시 간: 09:00~ 14:30(총 2일 10시간)
내 용: 식품가공 트렌드 분석, 가공식품
조리실습 및 포장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치매심리정서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9. 20(토), 27(토)
시 간: 09:00~ 14:30 (총 2일 10시간)
내 용: 치매의 이해, 치매 종류, 치매 평가,
치매 예방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2025년 가톨릭상지대학교

가을학기 평생직업교육과정 모집대

신청 기간: 8. 18(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LEAD.CSJ.AC.KR 접속 후 신청
다양한 수강료 할인 혜택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신청문의: RISE사업단 지역협력팀
(054-851-3007~8/ LEAD.CSJ.AC.KR)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입학 진로체험 안내

대 상: 본교에 관심이 있는 전국 중학교
3학년 누구나
내 용: 입학정보에 도움이 될 4개학과진로체험
학 과: 보건간호과, 경영금융서비스과,
카페경영과, 부사관과
일 시: 2차- 7. 12(토)/ 3차- 8. 30(토)
4차- 9. 13(토)/ 5차- 9. 27(토)
매 차시 10:00~ 13:00
문 의: 학교 홈페이지 또는 054-541-3082
* 본교는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고등학교입니다.